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관계 속의 하느님

한 분의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각기 다른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의 하느님이시다’라는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에 우리가 알게 된 계시입니다. 그것은 이론이나 체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장 서두에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하느님의 지혜가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셨음을, ‘창조 때 아버지와 말씀과 영의 기운’이 함께 공동 창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창세 1,1 참조) 이러한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심을 바오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이고 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1코린 1,24 참조) 성령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가져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바를 더욱 풍부히 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한 분이시고 사랑이신 하느님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시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느님의 영, 교회의 영이시며 만물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능력인 성령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성부 하느님은 우리 앞에 계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이시며, 아들이신 성자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동반자요 벗이 되어주시는 하느님이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내부로부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완성으로 이끄는 사랑의 하느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 다르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요한 17,22 참조) 예수님의 기도가 희망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각의 지체로서 하나를 이루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황병석 파스칼 신부 | 대방동본당 주임



제 1 독 서 탈출 34,4ㄱㄷ-6.8-9
화 답 송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제 2 독 서 2코린 13,11-13
복 음 요한 3,16-18

주일 진레

120년의 역사와 전통 완월동성당

민창홍 요한

성당 입구 벽면에 커다란 액자가 신자들의 시선을 끈다. 본당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본당의 비전과 미션을 제시한 게시물이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완월동본당, 선교와 일치로 새롭게 거듭나자!” 사목위원들이 지난 1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정한 본당의 비전이다. 아울러 “하느님 나라 만들기”라는 미션을 정하고 선교와 일치하기, 본당 역사관 만들기, 전례에 맞들이기, 시설을 보완하기, 실버분과 만들기를 목표로 삼았고 이에 따른 실천사항까지 커다란 게시물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신자들이 성당에 들어오고 나가며 볼 수 있게 하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본당 설립 120주년의 해

초대 주임 에밀 타케(염택기) 신부님께서 1900년 6월 29일 범골자락(현 완월동 성지여중·고)에 초가집을 짓고 마산포본당을 설립한 이래 1910년 제르만 못세(문제만) 신부님께서는 사립 성지학교를 성당에 열었고 올리오 베르몽(목세영) 신부님께서는 1928년 석조성당을 신축하였다. 일명 돌성당으로 불리는 석조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면서 마산지역의 복음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일제의 탄압으로 강제 폐쇄됐던 학교는 광복 후 다시 설립 인가를 받아 학교와 성당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던 중 1966년에 마산교구가 태동하고 초대 교구장이신 김수환 주교님의 성성식이 거행되는 영광도 있었다. 마산포본당은 완월동본당으로 명칭이 바뀌고 학교가 커지면서 현재의 위치인 주택가로 1974년에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0주년 때에 성지학교 교정에 있는 석조성당은 성요셉성당으로 경상남도 문화재 제283호로 지정되었다.

마산교구의 종가본당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곳곳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은 역사를 알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완월동본당 신자들은 지난해 10월 초대 신부님이신 에밀 타케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대구지역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성직자 묘소에서 참배도 하고 대구대교구 신부님을 초청하여 에밀 타케 신부님의 사목활동과 행적에 대하여도 강의를 들었다. 특히 제주도에서 사목하시면서 제주 왕벚꽃이 외래종이 아닌 우리 고유의 꽃임을 세계 식물 학계에 알렸다는 내용은 감동을 주었다.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에밀 타케 신부님의 발자취의 출발점이 완월동성당인듯하여 자긍심이 더 컸다. 자긍심에 머물기만 할 것이 아니고 120주년을 맞아 신자들 모두가 새롭게 의미를 더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성요셉성당 전경

성인 유흔遺痕이 모셔진 성당으로 교구장 순례지 지정 희망

완월동본당에는 마산교구에서 유일하게 103위 성인 중, 성 김대건 신부님의 유흔과 성 앙베르 주교님, 성 샤스탕 신부님, 성 모방 신부님의 성인 유흔이 모셔져 있다. 1925년 명동성당에서 성인 유흔 분배 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이자 본당 4대 신부인 올리오 베르몽 신부님께서 받아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유흔과 함께 받아온 서류는 대구에서 보관 중 화재로 소실되어 유흔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성인 유해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성광은 감실 아래쪽에 모셔져 있다. 본당 신자들은 순교성인들의 유흔을 모시고 있는 본당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순교 영성을 고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구 안팎의 신자들이 성 요셉성당과 연계하여 완월동성당을 순교 성인들의 순례 거점지로 여김으로써 완월동본당이 순례지로서 새롭게 자리매김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이는 본당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설정한 미션의 목표 중 하나인 역사관 건립과 맞물려 교구 내 순교 성인 순례를 위한 스토리텔링을 계획하게 된다면 훌륭한 초석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다.



감실 아래 모셔진 성인 유흔
(왼쪽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오른쪽 - 성 앙베르 주교, 성 모방 신부, 성 샤스탕 신부)



현재 완월동성당

미션의 실천 및 역사관 건립 추진

본당 설립일 하루 전날인 6월 28일에 신자들의 정성을 모아 조촐하게 감사 미사를 봉헌하고 120주년 기념식은 새로이 구성된 기념사업팀의 진행 결과를 보면서 본당 견진성사일인 11월 마지막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교구장 주교님을 모시고 기념식을 갖기로 사목회에서 결정하였다.

미션의 실천은 서두르지 않고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교와 일치하기, 전례에 맞들이기의 실천사항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으며 노령층의 신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사목회에 실버분과를 신설하고 교육 및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 본당 역사관 만들기, 시설을 보완하기는 노후 건물로 인하여 본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다. 3층에 있던 성전을 1층으로 10년 전에 이전한 것도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던 이유가 컸다. 그 무렵부터 제기된 엘리베이터 신설문제, 노후된 건물의 안전문제, 누수로 인해 시설 보완을 해야 하는 사제관 건물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념사업팀을 구성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을 기념사업단에서 마련하면 사목회에서 논의하고 신자들에게 공개하여 하나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기념사업단의 노력과 함께 2층 회합실 복도에 역대 교구장님과 주임 신부님, 역대 본당 회장의 사진 액자를 정비하면서 역사관의 첫 발자국을 내디뎠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긴 복도를 가득 메운 사진들을 보며 비좁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넓은 공간에 120년이라는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역사관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본당의 시설물 모두를 정비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치의 기도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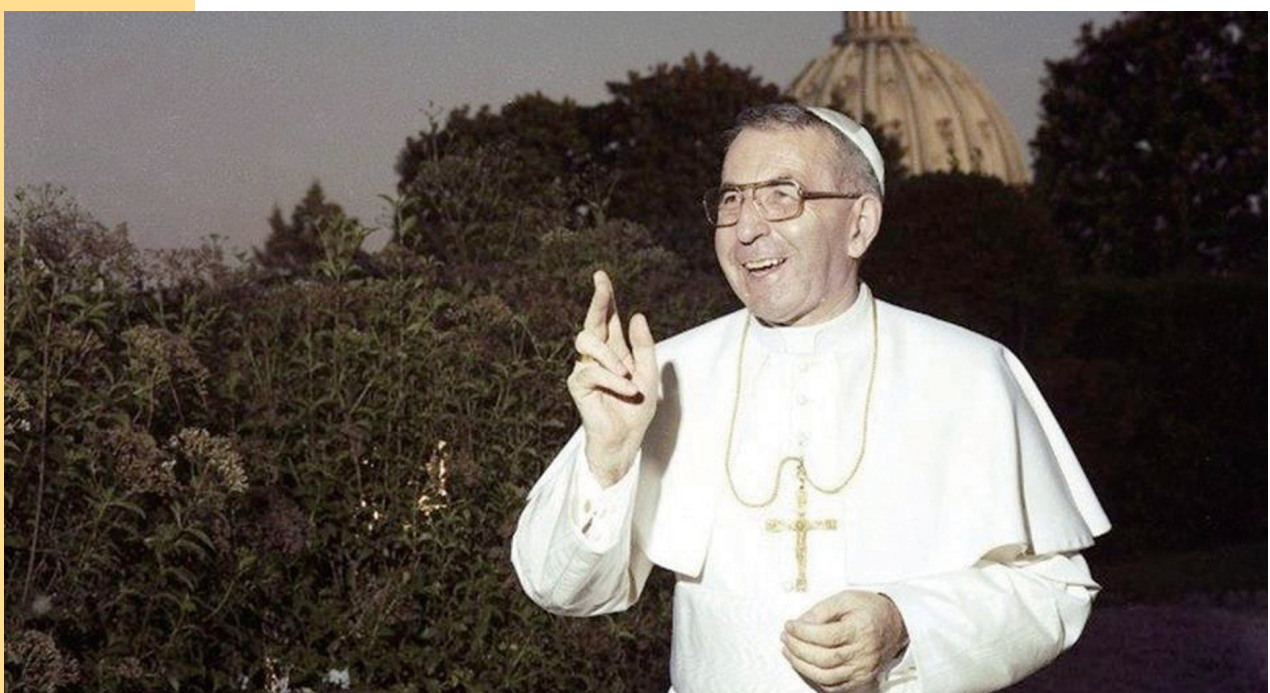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재단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지난 2월 17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재단> 설립을 명하는 교서에 서명하셨습니다. 바티칸은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8일 재단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1978년 8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3일간 재위하신 ‘미소 짓는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종교적,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여 널리 알리는데 있습니다. ‘친근함’, ‘겸손’, ‘단순함’,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함’, ‘이웃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사랑과 연대’는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를 연상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들입니다. 이러한 면모들은 보편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이기 이전에 겸손한 사제 알비노 루치아니의 사랑 가득한 목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재단의 첫 이사장인 국무성 장관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요한 바오로 1세는 오늘날 여전히 중요한 인물’임을 강조하면서, 그분의 ‘교회적 가난의 지속성과 보편적 형제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역동적인 사랑’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기경은 요한 바오로 1세의 행적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1978년 9월 10일 삼



종기도 후 중동의 평화와 타 종교 지도자들을 초대하는 강론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는 ‘세상 곳곳을 향한’ 이 강론을 통해, 교황청의 모든 외교적 행동의 본질과 특성은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은 모든 민족, 모든 문화, 모든 인종에 열려” 있으며, 교회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 기적적인 해결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정의와 형제애, 연대와 희망의 환경을 만듦으로써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황님의 사목적 행보는 전적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철저하게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짧은 재위 기간으로 당신의 사목을 폭넓게 펼치지는 못했지만, 오늘날 여전히 교황님께서서 사람들의 고통과 사랑에 목말라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교회의 미래적 설계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지향성을 가능하게 하는 영성의 바탕에 평소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사목 표어인 ‘겸손’(Humilitas)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이들을 방치해선 안 됩니다”: 바티칸과 세계 보건 기구

교황청은 바티칸 시국으로 국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각종 국제 기구에 대표를 파견해서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전 세계를 향해 적절하고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19일 있었던 국제 보건 기구 73회 총회에서 바티칸 대표인 이반 주르코비치(Ivan Jurkovic) 대주교가 참석하여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대주교는 먼저 보건 문제는 ‘우선적인 공동선의 문제’로서, 국제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 요구됨을 강조하였습니다.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이라는 오늘의 위기는 많은 국가에서 기아와 불안의 지속적인 도화선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르코비치 대주교는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세상의 연약한 이들을 잊지 말것을 촉구하고 계심”을 상기시켰습니다.

‘연약한 이들에 대한 교황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바티칸은 “지금 당장 세상의 모든 전쟁을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전쟁의 중단은 모든 적대감의 종식을 통한 인도주의적인 원조와 외교적 개방성과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티칸의 대표는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예외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백신 개발과 치료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톨릭 교회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제안은 특별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말미에 주르코비치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바티칸에 〈코비드-19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팬데믹’에 맞서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데 힘쓸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원칙’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사명인 복음 선포에 충실한 모습이며, ‘팬데믹’에 맞서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일 림



교구장 동정

주교 영성모임

일시: 6월 8일(월)~9일(화) 1박 2일
장소: 제천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주교회의 노동사목소위원회

일시: 6월 9일(화) 11:00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6월 9일(화) 10:00
장소: 교구청

구역분과위원장 모임(마산지구)

일시: 6월 10일(수) 14:00
장소: 양덕동성당
문의: 사목국 055·249·7022~3

구역분과위원장 모임(창원지구)

일시: 6월 11일(목) 14:00
장소: 반송성당
문의: 사목국 055·249·7022~3

신학생 여름방학

일시: 6월 13일(토) - 광주가톨릭대학교 2~6학년
6월 15일(월) - 광주가톨릭대학교 학부 1학년

청년 신앙강좌

일시: 6월 28일(주일) 13:00~15:3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강사: 이정림 신부(교구 청소년국장)
주제: 계시-인간에게 건네시는 하느님의 고백
신청: 6월 21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톡플러스친구 '청년부'
※ 신청 후에만 청강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접수 불가)

위원회/기관/단체

2/4분기 교구여성협의회 상임위원회

일시: 6월 9일(화) 11:00
장소: 교구청

교구 평협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

일시: 6월 12일(금) 19:00
장소: 교구청

202차 ME주말 안내

일시: 6월 12일(금) 19:00~14일(주일) 17:30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E-mail: mun760216@hanmail.net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수도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야고보 아빠스와 함께하는 자
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1박 2일
장소: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마산 재속 맨발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안내

관상적 기도와 사도직에 관심있으신 분
대상: 만 55세 이하의 남녀 신자
문의: 010·8525·1150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 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449만원 (10월 5일, 인솔자 동행) 070-4086-0207 www.catravel.co.kr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제주성지순례 3박4일 28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영로 489 (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SM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40년 전통 <팔보효소> 생활절식·효소단식 ▶미·중국 수출 ▶부모님 건강 선물 ▶간헐적단식 ▶해독요법 ▶효소피정 ▶지리산 산청 발효·OEM 전문 www.palbo.co.kr ☎1600-0830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10월 15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순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13일 390만원(공동경비 포함) 분도여행사 02.852.8525



일 립

일정: 6월 17일~19일, 6월 26일~28일, 7월 3일~5일, 7월 25일~28일(우도), 8월 1일~4일(우도), 8월 6일~9일(우도)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일사: 8월 5일(수)~9일(주일) 4박 5일
장소: 서울 성베네딕도회 피정의집
지도: 허성준 신부, 이경희 수녀
회비: 36만 원(36명/ 1인실)
문의: 최 안나 010·4731·2468

기 타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1인 1실,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리두기 가능합니다.
일사: 6월 19일~21일, 7월 3일~5일, 7월 27일~29일, 7월 31일~8월 2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2~3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
문의: 사무국 055·242·6776

명례 교회사 강좌

내용: 1년 과정, 월 1회(6월부터)
일정: 평일반 - 3주(화) 11:00
(인물로 보는 한국교회사 “김대건·최양업 신부의 서한으로”)
주말반 - 3주(토) 16:00 미사 후
(세계교회사 입문 “그리스도교 형성과 발전”)
수강료: 10만 원(봉사자 7만 원)
문의: 명례성지 055·391·3206



기억할 선종 사제

이응석(프란치스코) 신부
2010년 6월 8일



기억할 선종 사제

문영수(시몬) 신부
1994년 6월 14일

故 이응석 프란치스코 신부 10주기 추도미사

일사: 6월 8일(월)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문의: 남경철 신부 010·9514·0825

故 정삼규 요한 몬시뇰 21주기 추도미사

일사: 6월 15일(월)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문의: 정영규 신부 055·224·2009
▶ 미사 후 점심식사 준비 - 이화식당(묘지입구 부포사거리)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에 운행하던 버스 없음
승용차 이용바람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6월 14일(주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여성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매년 6월은 한국 천주교회 구성원들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달이며, 특별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매년 6월 25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6월 17일(수)~25일(목)
- 방 법 : 미사 전·후 기도문 함께 봉헌
- 기도문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109면/ 매일미사 191면)
- 지 향
 - 6월 17일(수) -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 6월 18일(목) - 북한과 미국,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 6월 19일(금) -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하여
 - 6월 20일(토) - 경제제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6월 21일(주일) - 남과 북의 복음화를 위하여
 - 6월 22일(월) -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을 위하여
 - 6월 23일(화) - 한반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 6월 24일(수) - 평화의 일꾼들을 위하여
 - 6월 25일(목) -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2019. 12. 1~ 2020. 11. 28.



지구를 품고 계신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느님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예수회 신부님을 강사로 모시고 연 피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감五感과 상상을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상기도를 지도하시는 신부님께서는 “기도하는 1시간 중 마지막 1분까지 충실히 머물러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은총이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을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그 기도 주제들 중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어떻게 지구를 바라보시는지 관상하기’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 기도 중 한 장면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어떻게 지구를 바라보시는지 생각하면서 하느님 삼위께서 원탁에 앉아 계신 것을 상상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삼위께서 서로 등글게 어깨동무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니 원탁은 사라지고 그분들 안에 ‘지구’를 소중히 품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기억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생히 살아있어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5월 말 현재 전 세계 34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 수많은 확진자와 그 가족들, 의료진들은 물론 온 인류를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느님 그분들께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 품에 안아 보살필 뿐 아니라 확실하게 책임지신다는 든든한 믿음과 희망, 사랑을 제 안에 가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100% 알아듣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신 아드님. 아버지와 그 아드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아드님의 구속사업을 계속 이어가시는 성령님.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온 마음과 목숨, 정신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고백하는 하느님이 고독하게 홀로 우뚝 높이 계시는 유일한 하느님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이시며 온전히 타자를 향한 존재로 타자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넘겨주고, 타자로부터 온전히 받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되는지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인간성이 상실되고 피폐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 인간 존재를 구원해 줄 유일한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무죄한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 극악한 십자가형에 처한 이들을 용서하며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나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지신 분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특히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세상 안에서 기꺼이 삶의 십자가를 지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삼덕의 길을 걸어가는 수도자들의 공동생활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 생명의 역동성 즉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일치 안에서의 다양성이라는 양쪽을 모두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류에게 하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 너무나 변화되는 인류의 삶, 특히 교회의 삶을 걱정하는 이때에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신의와 충실함이 여전히 믿는 이들을 통해 활발히 역사하시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 구원의 신비를 이루어 가시리라 확신하며...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과 성령의 친교가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Lyuba Yatskiv <천지창조, 2019>